

2022년 3월 6일 “성경의 큰 숲 보기(62) 요한계시록: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 21:5-7)

저자 요한은 밧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서신의 골자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선하신 목적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부름 받은 존재는 교회입니다.

[1] 요지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통치를 위임하여 피조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첫 대리통치자 아담은 이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약을 통해 아담의 실패를 부단히 회복시키려 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함께 재림의 때까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면 요한 때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2] 흐름과 구성

(1) 1:4~3 장 일곱 교회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촛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교회를 주관하며 함께 하십니다. 일곱교회(에베소~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마다 칭찬/책망을 받으며 여러 다른 특징을 보이지만, 이기는 교회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완성된 피조계)의 상속이 약속됩니다.

요한은 교회가 승리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2) 4-5 장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

요한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찬양/경배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이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일곱 개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는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이 인을 떼 자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이십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악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3) 세가지 7 심판

- i. 6-8 전: 일곱 인 심판
- ii. 8 후-11: 일곱 나팔 심판
- iii. 15-16: 일곱 대접 심판

이 세가지 심판은 요한시대~마지막 날까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i. 인 심판 → 인을 떼 때마다 전쟁, 정복, 기근, 죽음 사건들이 벌어지고 다섯 번째 인을 떼 때 순교한 자들의 탄원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 때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이 때 견디는 자는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예수님 따르는 백성들(교회)입니다(7 장). 7 째 인을 떼 때 여호와의 날은 완성됩니다.

ii. 나팔 심판 → 나팔이 불릴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지만 나라들은 옛 바로와 같이 회개하지 않습니다(9:20-21).

10:1-11:13 에서 보여주는 성전과 두 증인은 이들에게 박해를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때 갑자기 나타난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지만 곧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두루마리가 보여주는 교회

사명, 즉, 어린양의 사랑의 희생을 본받고 따를 때 열방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고 나라들은 두려워합니다(11:19).

대접 심판 전에 요한이 본 것은,

12 장: 천상의 전쟁- 어린양의 죽음과 부활로 내쫓긴 뱀이 교회를 괴롭히고 세상 세력을 이용하여 박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13 장: 세상의 전쟁 - 군사력을 주도하고 경제적 선동을 주도하는 두 짐승이 출현하는데 이들은 로마 권세 아래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14 장(전) 어린양의 복음 - 새 예루살렘을 보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언합니다

14 장(후) 최후 심판 - 하나님 백성에 대한 추수/인류의 악에 심판을 보여줍니다.

iii. 대접 심판 또한 재앙을 일으키며,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아마겟돈 전쟁(하나님의 공의에 대항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7 번째 대접 심판은 악의 완전히 패망을 보여줍니다.

**(4) 17 장-19 전** 바벨론의 멸망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합니다.

**(5) 19 후-20 장:**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마지막 전쟁 I(18:11-21) -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순교자들의 신원(20:1-7) - 성도의 천년 다스림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II(20:8-15) - 하나님 보좌 앞에서 승리. 용/바벨론/추종자들의 영원한 결박.

**(6) 21-22 장 하늘과 땅의 혼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잔치를 통해 구약 약속들의 성취의 대향연이 벌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새 에덴동산/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성전입니다.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맺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에 동참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습니다. 이 참 길을 완주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당신은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유롭게 말씀해 봅시다.
2.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대항하는 적대세력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